

## 南子木蓋의 研究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 A Study on *nam ja mok kai* (南子木蓋)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IV. 解 釋
I. 緒 論	V. 結 論
II. 先 行 研 究	參 考 文 獻
III. 漢 音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to interpret the word *nam ja mok kai* (南子木蓋) in Keirim Yusa (鷄林類事).

Comparative linguistic analytical approaches were employed for this research.

Results and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similar words to *jamok kai* (子木蓋) of Koryo were in Mongolic, Manchuric as well as in Hebrew.

Thus, the word *nam ja mok kai* (南子木蓋) is not reversed word of *nam mok ja kai*(南木子蓋).

The word *jamokkai* and the meaning of it were derived from Hebrew.

#### I. 緒 論

鷄林類事의 高麗方言 研究는 활발한 연구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高麗方言 研究는 대체로 國語史의인 면에 치우쳐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鷄林類事는 宋나라의 孫種이 高麗語를 당시의 漢字音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므로 國語史의인 研究 方法만으로는 解讀되지 않는 어휘들이 있다. 또한 이미 해독된 것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아직 未詳 또는 不明

으로 남아있는 어휘들이 있다.

이러한 어휘 가운데 “夾袋曰 南子木蓋”가 있다. 本 研究에서는 “夾袋曰 南子木蓋”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先 行 研究를 검토하고 주변 언어나 또는 方言 등에서 “夾袋曰 南子木蓋”와 類似한 어휘들을 찾아 내어 그것들을 위의 기록에 보이는 것과 比較하여 보고자 한다.

## II. 先行 研究

劉昌惇은 “夾袋 曰 南子木蓋”를 “南木子蓋”로 수정하고 이것을 “ㄴ뫓개”로 해독하였다<sup>1)</sup>.

方鍾玄은 “南子木蓋”를 “남자모개”라고 읽고서 이것은 未詳이라 하였다<sup>2)</sup>.

그후 李基文도 劉昌惇과 같이 「南子木蓋」는 “나뫓”에 해당할 것이므로 “南子木蓋”를 “南木子蓋”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sup>3)</sup>. 金喆憲도 劉昌惇과 李基文의 見解에 同調하였다<sup>4)</sup>. 그러나 陳泰夏는 “夾袋 曰 南子木蓋”를 取하고 이것을 南子夾袋 曰 木蓋로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傳寫時의 奪說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sup>5)</sup>. 그는 張宗祥 校正 明鈔 說郛本을 따랐다.

그리고 또한 그는 囊의 辭初語는 “나뫓” 또는 纏帶였으므로 “木蓋”의 音值와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sup>6)</sup>.

姜信沆은 “南子木蓋”의 漢音을 *nam-tsi-məŋ-kai*라고 읽었고 國音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해석도 하지 않았다<sup>7)</sup>.

夾袋는 衣袋 卽 衣囊을 意味한다. 朝鮮時代에 囊은 ㄴ뫓, 또는 ㄴ뫓이라 하였다. 鷄林類事의 研究者들은 朝鮮語에 囊을 ㄴ뫓, 또는 ㄴ뫓이라 하였으므로 “南子木蓋”를 ㄴ뫓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 “南子木蓋”란 기록을 “南木子蓋”의 誤記로 보았다.

그러나 “南子木蓋”를 李朝語 ㄴ뫓 또는 ㄴ뫓과 대응되는 말로 보기 위하여 “南子木蓋”를 “南木子蓋”로 修正하여 “南木子蓋”와 ㄴ뫓, ㄴ뫓과를 연결시키려는 接近 方法에는 無理가 있다고 보인다. 鷄林類事의 高麗 方言에는 誤記나 誤寫가 더러 있기도 하다. 그러나 原文을 修正하는 것에

는 충분한 연구가 수행된 후에야 도모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鷄林類事의 “夾袋 曰 南子木蓋”란 記錄에 나타나는 고려의 “南子木蓋”란 말과 유사한 말이 國語의 方言이나 또는 주변언어에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南子木蓋와 比較하여 보기 위하여 먼저 南子木蓋의 漢音을 보기로 한다.

## III. 漢 音

### 南 音

1. 「廣韻」「集韻」「韻會」「正韻」那含切 覃平聲 *nan*  
「唐韻」那含切 音男 *nan*
2. 「韻補」마尼心切, 音寧
3. 北宋汴梁(開封) 語音 *nam<sup>8)</sup>*,  
漢古音 *nam<sup>9)</sup>*.

### 子 音

1. 「廣韻」卽里切, 「集韻」「韻會」「正韻」相似切 紙上聲 *tzy, tzu*
2. 「集韻」將吏功 寘去聲 *tzyh*
3. 北宋汴梁(開封) 語音 *tzi*
4. William 古音 *tsai, tsi, dzai, tsit, ti, tip*
5. Karlgren 古音, *tzi*
6. 辭海 *tz*

### 木 音

1. 「唐韻」「廣韻」「集韻」「韻會」莫卜切 音沐屋入聲 *muh, mu*
2. William, *mot, mok*
3. 古漢音 *muk<sup>10)</sup>*.
4. 北宋汴梁(開封) 語音 *muo<sup>11)</sup>*.

1) 劉昌惇, “鷄林類事 補遺,” 崔현배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 思想界社, 1954), p. 149.

2) 方鍾玄, “鷄林類事 研究,” 東方學志 2, 185.

3) 李基文, “鷄林類事의 一考察,” 일석 이희승 선생 송수기념논총, (서울: 일조각, 1957), p. 407.

4) 金喆憲, “鷄林類事 研究,” 국어국문학, 1962, p. 105.

5) 陳泰夏, 鷄林類事 研究, (서울: 塔出版社, 1975), p. 497.

6) 上揭書

7) 姜信沆, 鷄林類事 高麗方言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80), p. 88.

8) 陳泰夏, 鷄林類事 研究, (서울: 塔出版社, 1975), p. 770.

9) 上揭書, p. 694.

10) 上揭書

11) 上揭書, p. 772.

5. 平山 mək

蠶 音

- 1. 「唐韻」「廣韻」古太切, 「集韻」「韻會」居太切 音勾 泰 去聲 gay(中文), kai(康熙)
- 2. 「廣韻」古盍切, 「正韻」古畱切, 音郵合 入聲 gee(中文), 「正韻」古畱切 音曷 ko(康熙)
- 3. 「廣韻」胡臘切 音盍 ho(康熙), her(中文)
- 4. William kat, kak, kap
- 5. 北宋汴梁(開封) 語音 kai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漢音 “南子木蓋”는 여러 음으로 표음될 수 있다. 南子木蓋의 高麗音은 ‘남주머개’였을 것이다. ‘주머개’란 말은 李朝語 주머니란 말의 원형으로 간주된다.

IV. 解 釋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南子木蓋와 ㄴ뫼 또는 ㄴ뫼과는 音을 대응시키기가 곤란하다. 南子木蓋를 原文대로 두고는 대응시킬 수가 없으므로 南子木蓋의 “子”字와 “木”字의 順序를 대치시켜서 ㄴ뫼 또는 ㄴ뫼과 대응시킨 것이다.

蠶을 의미하는 李朝語로는 ㄴ뫼, ㄴ뫼 외에도 주머니란 말이 있다. 이 주머니란 말이 ‘子木蓋’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먼저 주머니란 말의 여러 변형과 방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子木蓋와 유사한 말이 주변어에 있는지 찾아 보고자 한다.

주머니란 말은 주머니, 줌어니, 조만, 줌치 등으로도 나타난다.

- 주머니~주머니 럽(笠)<sup>12)</sup>, 주머니(荷包)
- 주머니~주머니에 넋타<sup>13)</sup>
- 조만~囊 曰 조만<sup>14)</sup>
- 줌치~되 줌치예(布袋)<sup>15)</sup>, 자근 줌치예<sup>16)</sup>
- 주머니란 말은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 주머니 ← 주머니 ← 줌-어니

주머니란 李朝語는 현재까지 남아있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며 여러 地方의 方言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주머니의 方言

- 조마니~전남
- 조마이
- 주머이~함경, 량강, 강원
- 주머치~
- 주먼지~충남, 전남
- 주먼치~평북, 자강
- 주머이~함남, 경북, 강원
- 주메이
- 주맹기~제주도
- 주맹이~
- 주무니~경남
- 주무이~경상
- 주문치~경남
- 주몌치~경남
- 주미~경북
- 주머이~경상
- 줌치~경상
- 주메이
- 주머니
- 주머이
- 줌치
- 두머니
- 넙차게~평북
- 옆차게~경기, 황해
- 옆차기~강원

鶴林類事와 高麗方言 “夾袋 曰 南子木蓋”에 대한 기록은 “南”字를 “男”字로 標記한 版本도 있고 “蓋”字를 “蓋”, “蓋”字로 標記한 版本도 있다. 「南」과 「男」字는 서로 通하는 글자이다. 蓋字는 蓋字의 俗字이며 蓋도 蓋의 俗字이므로

12) 訓蒙字會 中, 12.  
 13) 蒙語類解 上, 44.  
 14) 東君考略.  
 15) 分門瘧疾易解方.  
 16) 癸丑日記, p. 226.

「南子木蓋」의 解讀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南”字와 “男”字는 音義 모두 통하는 글자이므로 “南”字는 “男”字의 意味로 해석할 수도 있다.

南子木蓋의 南字는 그 音이 借用된 글자인지 男字와 同音同義語로 사용된 글자인지 알 수가 없다.

藍格明鈔本(1522~1566 A.D.)을 비롯하여 海東譯史本(純祖 25年, 1823 A.D.) 등에는 男子木蓋로 기록되어 있는데 南字와 同音同義語인 男字로 보면 위의 版本에서와 같이 男子木蓋가 된다. 그러면 南子木蓋, 卽 男子木蓋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南(男)子木蓋로 읽을 것인가 南(男)子木蓋로 읽을 것인가?

“子木蓋”란 高麗語와 比較할 수 있는 말이 주변어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몽고어에 수말(*su-mal*)<sup>17)</sup> 또는 수말(*su-mal*)<sup>18)</sup>이란 말이 있는데 이 수말 또는 수말이란 말은 口 즉 자루를 의미한다. 만주어로도 口俗를 “수말”(*su-mal*)이라 하는데<sup>19)</sup> 만주어 “수말”은 몽고어 “수말”과 그 音義가 同一하다. 만주어 “수말”은 몽고어 “수말”에서 由來된 것을 알 수 있다.

“수말”이나 “수말”은 高麗語 “子木蓋”와 音義 모두가 유사하다. “子木蓋”와 유사한 말은 몽고어나 만주어 외에 히브리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南子木蓋를 南子木蓋로 떼어 읽고 “子木蓋”란 高麗語와 몽고어 *sumal*과 유사한 말에 히브리어 שמלל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라비아어 *shamala*(enclose, envelope)에 근원이 있는 말이다.

שמלל에서 유래된 שמלל은 wrapper, mantle, garment, clothes, covering or receptacle for articles의 뜻이 있다. 이 שמלל에 接尾語가 붙으면 שמללל가 된다. 高麗語 “子木蓋”는 이 שמללל와 그 音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שמללל의 뜻 가운데서 “receptacle for articles”란 意味는 “夾袋”란 “子木蓋”의 意味와 相通한다.

高麗語 “子木蓋”는 子木+蓋로 “子木”은

Heb. שמלל에 대응되며 “子木蓋”는 שמללל에 接尾語가 붙은 שמלללל와 대응되는 말이라는 것이 발견된다.

“子木蓋”는 שמללל의 高麗語 音譯이거나 변형의 하나로 해석된다.

Heb. שמללל가 高麗語로 音譯될 때에 중간에 l, 또는 l과 t(th) 音이 탈락되고 子木蓋로 표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Heb. 接尾詞인 ל 音은 高麗語로는 蓋字로 音譯된 것을 子木蓋에서 뿐만 아니라 子母蓋에서도 볼 수 있다.

子母蓋에 대한 논의는 本 研究者의 先行 研究가 있다<sup>19)</sup>.

이와 같은 예는 또한 烏子蓋와 割子蓋란 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烏子蓋와 割子蓋에 대하여는 다음의 後續 研究에서 論議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몽고어 “수말”이나 “수말”은 Heb. שמל 또는 שמלל과 대응시킬 수 있는 말이다. שמלל의 의미중 물건을 담는 용구란 의미는 수말(수말)의 의미와도 같다. 몽고어 수말(수말)도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高麗語 子木蓋, 몽고어 수말(수말), 만주어 수말, 히브리어 שמלל는 音義가 유사한 말들로써 이 말들의 근원과 그 語源은 enclose, envelope의 뜻을 가진 아라비아어 *shamala*에서 유래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高麗語 子木蓋는 時代가 흐르면서 語尾 蓋字가 탈락하고 李朝語 주머니로 변하여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 V. 結 論

鷄林類事的 高麗方音에 나타나는 “夾袋 曰 南子木蓋”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南子木蓋”란 말은 “남주머개”를 漢字音으로 音譯하여 기록한 말일 것으로 해석된다. 南은 男으로 해석된다. “子木蓋”와 유사한 말은 몽고어 “수말” “수말”과 만주

17) 몽이유해 下, 11, 器具.

18) 方言 集釋 器用類.

19) 金鎮玖, “子母蓋의 研究,” 服飾文化研究, 제5권 제1호, (1997), 11-18.

어 “수말”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말들은 회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어 “子木蓋”는 李朝語 “주머니” “증치”란 말로 변하여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 參考文獻

- 姜吉云, 古代史의 比較言語學的 研究, 서울:새문사, 1990.
- \_\_\_\_\_, “길약어와 한국어의 비교연구(Ⅱ),” 수원대 논문집, 1984.
- 姜信沆,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80.
- 康熙字典.
- 金芳漢, 語源論, 서울:민음사, 1990.
- \_\_\_\_\_, 韓國語의 系統, 서울:민음사, 1983.
- 金富弼, 三國史記.
- 金鑽玖, “子母蓋의 研究,” 服飾文化研究, 제5권 제1호, (1997), 11-18.
- 金結憲, “鷄林類事研究,” 국어국문학 25, (1962), 101-128.
- 南廣祐, 古語辭典, 서울:일조각, 1987.
- 老乞大 諺解.
- 同文類解.
- 蒙語類解.
- 文璣奎, 朝鮮館譯語 研究, 서울:景仁文化社, 1972.
- 朴通事 諺解.
- 方言集譯.
- 方鍾鉉, “鷄林類事 研究,” 東方學志, 2, 연대 동방학 연구소, (1995), 3-205.
- 方鶴根, 韓國方言辭典, 玄文社, 1978.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상·하, 동광출판사.
- 徐兢, 高麗圖經.
- 孫穆, 鷄林類事.
- 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상·하. 譯語類解.
- 劉昌惇, “鷄林類事 補敝,” 최현배 선생 기념논문집, 서울:思想界社, 1954.
- \_\_\_\_\_, 李朝語 辭典,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 倭語類解.
- 李基文, “鷄林類事의 一考察,” 「일석 이회승 선생 송수기념 논총」, 서울:일조각, 1957.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백양당, 1947.
- 中文大辭典.
- 陳泰夏, 鷄林類事研究, 서울:塔 出版社, 1975.
- 衫本正年, 東洋服裝史 論攷, 東京:文化出版局, 昭和 59年.
- 小倉進平, 朝鮮語方言의 研究 上, 下.
- 勝田豊八, 東西文涉史.
- Bible.
- Boucher, Francis. *History of 2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 Harry N. Abrams, Publishers, n.d.
- Brown, Franci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Univ. Press, 1978.
- Karlgren, B.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 Kim, Jin-Goo. *Korean Costume: An Historical Analysi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 of Wisconsin, Madison, Wis., 1977.
- Picken, Mary Bookers.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ls, 1973.
- Ross, Heather Colyer, *The Art of Arabian Costume*. Switzerland, 1981.
- Wignate, Isabel B. ed. *Fairchild's Dictionary of Textile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1967.
- William, S. W. 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 Yarwood, Doreen,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Charls, Scribner's, Sons, 1983.